



달토끼 거북이 오징어

조수진 글·그림 | 반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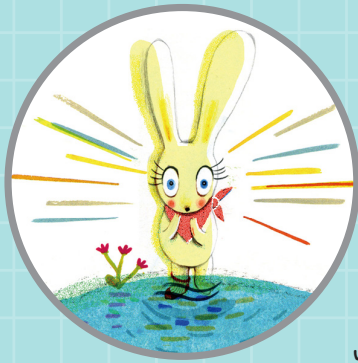


2016 볼로냐 어린이 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작!
숲속 작은 옹달샘에서 만난
달토끼, 거북이, 오징어의 우정 이야기
오징어는 무사히 바다로,
달토끼는 다시 달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달나라에는 두 마리 토끼가 삽니다. 어느 날, 토끼 한 마리가 발이 미끄러져 지구에 있는 작은 옹달샘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토끼는 옹달샘을 보고 한눈에 반해 버립니다. 달처럼 작은 옹달샘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곳에 자주 드나들던 거북은 달토끼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어부의 그물에 걸려 도시로 온 오징어도 힘차게 탈출했지만 우연히 옹달샘에 떨어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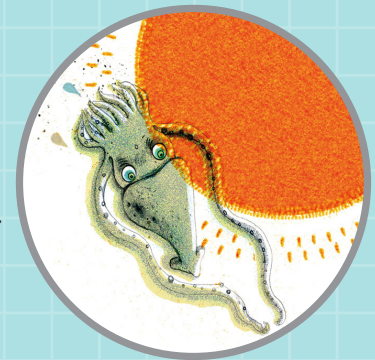
《달토끼, 거북이, 오징어》는 바다에 가고 싶은 오징어가 거북한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고, 바다가 궁금한 달토끼가 같이 가자고 해 셋이 바다로 떠나게 된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입니다. 무사히 바다에 도착하자, 이제 달토끼도 집에 가고 싶습니다. 걸어서 갈 수 없는 달나라에 달토끼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❶ 달토끼, 거북이, 오징어가 옹달샘에 모여 각자 자기소개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세요.



나는 _____에 살아. _____에는 두 마리 _____가 살고 있었지.
어느 날 달에서 뚝 떨어져 이곳 옹달샘에 오게 되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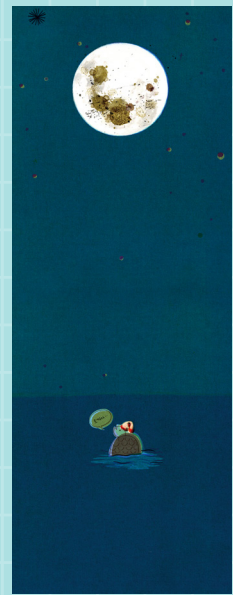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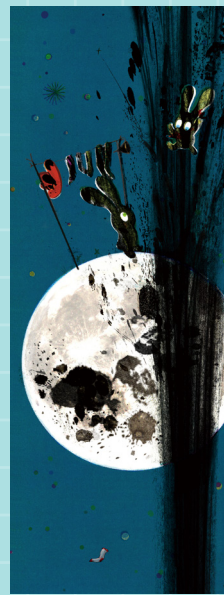
나는 트럭을 타고 _____에서 왔어.
_____에 갇혀 있다가 힘껏 탈출해서 옹달샘에 오게 되었어.



나는 부끄러워 _____이 빨개지지. _____에게 반했어.
오징어와 달토끼 때문에 함께 _____에 가기로 했지만,
사실 내 집도 바다야.



② 달에 생긴 먹물 자국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달토끼, 거북이, 오징어》의 내용을 보고 적어 보세요.



③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는 누구인지, 왜 함께 여행 가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와는 어떤 모습으로 여행할지 상상해서 그려 보세요.